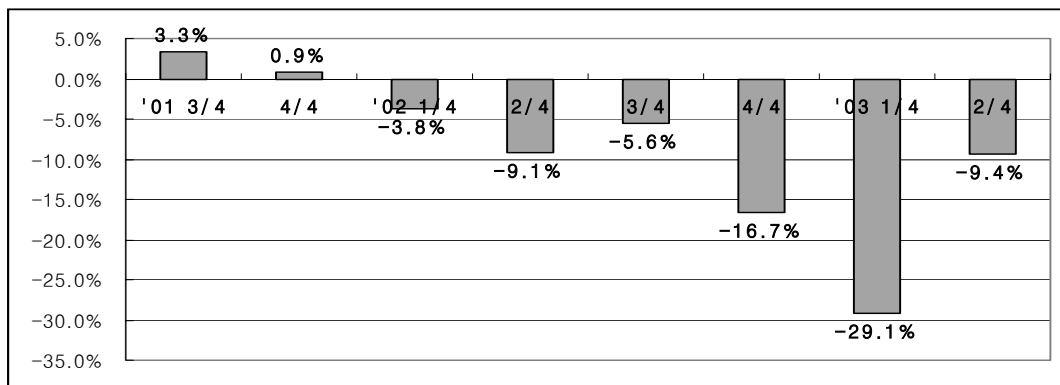


베네수엘라, 2/4분기 경제성장률 -9.4% 기록

□ 2/4분기 경제성장률 -9.4% 기록

- 2002년 1/4분기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된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2003년에도 1/4분기에 -29.1%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9.4%를 기록함.
- 1/4분기에는 총파업의 영향으로 석유부문이 크게 위축(-47%)되었으나, 2/4분기에는 외환통제와 가격통제 실시로 인해 국내소비가 크게 감소(-11.6%)함에 따라 제조업(-14.3%), 상업(-17.3%), 건설업(-50.7%) 등 비석유부문이 크게 위축(-10.4%)됨.
- 석유부문도 감소 폭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2.9%)을 보이는 등 아직 총파업 이전 수준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그림> 베네수엘라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 EIU

- 이에 따라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8.5%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경제성장률은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베네수엘라는 2002년에도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4차례나 발생하는 등 극도의 정국불안이 지속되고, 12월 총파업으로 석유생산과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8.9%)을 기록한 바 있음.

□ 차베스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 절차 진행 중

- 차베스 대통령 지지파와 반대파가 청원한 탄핵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지난해 12월 발생한 총파업이 금년 2월 1일 중단되고 2월 19일 비폭력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차베스 지지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계속되어 왔고,
- 현재 차베스 지지파는 카라카스 시장 등 차베스 대통령의 정적 46명에 대한 탄핵 국민투표 실시를 청원하였으며, 반대파는 차베스 대통령 및 집권당(MVR) 국회의원 34명 등에 대해 청원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차베스 대통령의 탄핵 국민투표 향후 일정은 선관위에 국민서명이 접수(12월 10일한)되고 선관위가 서명의 유효여부를 검토(04년 1월 10일한)한 후 탄핵 국민투표 준비 및 실시일자를 확정(04년 4월 18일한)할 경우 2004년 5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됨.
- 베네수엘라 정국이 지난해와 같이 차베스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유혈 충돌사태로 전개되는 대신 투표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국민투표 실시를 둘러싼 정국불안 지속으로 향후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책임연구원 김영석(☎3779-6653)
E-mail : claudio@koreaexim.go.kr